
네오아트센터
노 재 순
또 다른 소리를 탐하다
2026. 10. 14. WED — 12. 06. SAT
OPENING
2026. 10. 14. WED 16:00
3,4전시관
NEO Art 수암골 네오아트센터

노재순

Roh Jae Soon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
40여 회(서울, 제주, 동경, 지바, 베이징)

단체전 /
200여 회

수상 경력 /
2019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2018 한국구상대제전 특별상
2010 예총예술문화상 대상

작품 소장처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육당 최남선기념관, 북경 지고미술관,
대구 인터블고 호텔 컨벤션센타, 설악 델피노 리조트, 한탄리버스타호텔, 아산 복합문화공간 모나밸리

前 제21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現 단원 미술 대전 운영위원장

NEO Art

'또 다른 소리를 탐하다'
감정의 의태어를 넘어 영혼의 분신

갤러리를 운영하며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자 기쁨은 단연 작가의 작업실을 직접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은 아트페어나 기획전 등 잘 정돈된 전시장에서 작가의 작품을 처음 마주하지만, 그 작가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우리 갤러리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실 문을 두드려야 한다. 화실은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전시장에서 미처 다 느낄 수 없는 작가의 진솔한 이면을 확인하게 해주는 유일한 공간이다. 켜켜이 쌓인 물감 냄새 속에서 작가의 치열한 조형 세계와 감성, 배경이 되는 철학, 때로는 지나온 삶의 내밀한 이야기까지 가장 가까이서 호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하순, 봄을 시샘하는 눈발이 들녘을 하얗게 덮던 날 노재순 작가의 작업실을 찾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화실 문을 열자마자 내 시선을 거두어 간 것은 캔버스를 가득 채운 거대한 선홍빛 입술들이었다. 무채색의 거친 배경을 뚫고 터져 나오는 그 붉은 색채는, 차가운 눈길을 뚫고 온 방문객을 단숨에 압도하는 거대한 생명력 그 자체였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처럼, 본래 입술은 인간의 의사가 소통되는 통로이자 마음의 문이다. 인생의 힘든 고비마다 지그시 깨물며 결의를 다지기도 하고, 때로는 삐죽 튀어나와 그 어떤 말보다 선명한 감정을 쏟아내는 가장 정직하고 민감한 '감정의 의태어'이기도 하다. 일상에서도 창백한 입술이 쇠약해진 내면을 말해주듯, 여성들은 가볍게 붉은 립스틱을 덧바르는 것만으로 얼굴 전체에 생기를 되찾고 관능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기쁨과 슬픔, 생명력과 매혹을 쏟아내는 입술은 인간이 자신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기호인 셈이다.

노재순은 지난 10여 년간 이토록 매혹적인 '입술'이라는 단일 소재에 천착해 온 우리 시대의 화가다. 제21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며 한국 미술계의 행정적 기틀을 든든히 다졌던 그가, 작가로서 도달한 예술적 종착지가 가장 본능적인 신체 부위인 '입술'이라는 점은 여전히 짙은 역설의 미학을 선사한다. 작업실 한편에 놓여 있던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소년조선일보 주관 사생대회에서 입상하며 수줍게 웃던 '소년 노재순'의 진지한 눈빛은 60년 세월을 건너 거장의 치열한 화력으로 고스란히 치환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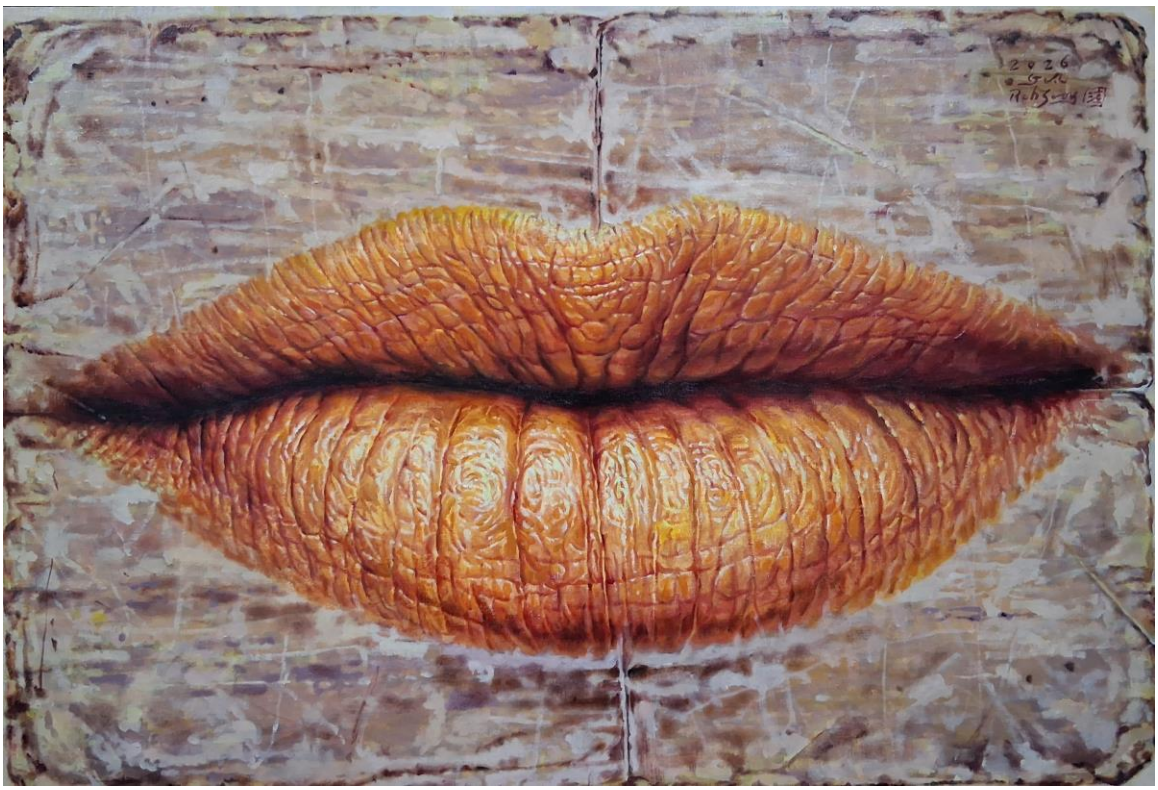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토록 붉은 입술에 천착하는가. 화면을 장악한 거대한 입술은 단순히 시각적 유희나 에로틱한 관능의 대상을 넘어선다. 신항섭 평론가가 짚어냈듯, 작가에게 입술은 세상을 향해 토해내고 싶은 내밀한 목소리이자 예술가로서의 끝없는 조형적 욕망을 대리하는 '영혼의 분신'이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껍데기 안에 개인적 갈등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고뇌를 꾹꾹 눌러 담아낸, 작가 자신의 치열한 내면을 비추는 거울인 것이다.

이러한 내면적 고백은 입술을 둘러싼 거친 배경과 충돌하며, 이번 초대전의 화두인 '또 다른 소리를 탐하다'로 귀결된다. 작가는 입술 너머로 그리고, 지우고, 긁고, 떼어내는 고단한 수행과 콜라주 기법을 통해 시간의 켜가 쌓인 낡은 '벽면'을 주조해 냈다. 작품속 찢어진 포스터 조각과 비바람에 얼룩진 자국 사이로 'DANGER', 'CAUTION', 'warning' 같은 강렬한 경고 문구와 노란색과 검은색이 교차하는 안전제일 테이프 문양이 어지럽게 명멸한다. 이는 혼란스러운 현실과 불특정 다수의 상처가 뒤엉킨 이 시대의 '사회적인 얼굴'이자, 억눌린 감정과 사회적 이슈들이 배설된 정신의 해방구다.

작품속 입술의 거대한 이미지가 시각적인 '형식미'를 압도적으로 주도한다면, 배경의 복잡다단한 낙서들은 현실을 꿰뚫는 철학적 '내용'을 묵직하게 이끌어간다. 무의미한 소음과 아우성으로 가득한 이 낡고 불안한 현실의 벽면 위에서, 작가가 그려낸 붉은 입술은 그 고단함을 뚫고 나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진실한 위로, 즉 '또 다른 소리'를 적극적으로 갈망하며 부르짖는다. 과거의 작업이 소음 속에서 굳게 다문 침묵의 미덕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의 입술은 현실의 경계선 너머로 새로운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뿜어내고 있는 것이다.

만물이 깊이를 더해가는 이 가을, 네오아트센터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그 거대한 입술들은 기나긴 침묵을 깨고 한층 더 묵직한 울림을 전할 준비를 마쳤다. 거친 붓질과 콜라주가 만들어낸 시대의 풍경 한가운데서, 결코 시들지 않는 붉은 생명력을 피워낸 작가의 집념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오는 10월 14일(수) 오후 4시 오프닝을 시작으로 12월 6일(일)까지 네오아트센터에서 이어지는 노재순 작가의 초대전은, 시각적인 압도감을 넘어 관람객 각자의 가슴속 깊은 곳을 반추하게 하는 따뜻하고도 강렬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이다. 깊어가는 가을날, 일상의 소란함을 잠시 내려놓고 캔버스 앞에 서보기를 권한다. 그곳에서 붉은 입술이 조용히 뿜어내는 작가의 내면 이야기와, 우리가 각자의 입술에 머금고도 아직 차마 내뱉지 못했던 저마다의 눈부신 '또 다른 소리'를 함께 마주하길 기대한다.
/ 네오아트센터 박정식 대표



Ardor

49x72cm,
Oil on canvas, 2026



Sound

91x91cm,
Mixed media on canvas, 2025



Wall of memories

72.7x72.7cm,
판넬 위에 종이+오일, 2026



Wall of memories

90.9x72.7cm,
Oil on canvas, 2025



Sound

120x194cm,
Mixed media, 2025



Sound

96x163cm,
Mixed media, 2025



Sound

97x97cm,
Mixed media, 2024



Sound

91x91cm,
Oil on canvas, 2026



Sound and Silence

72.7x92.2cm,
Mixed media, 2023



Sound and Silence

85.5x51.5cm,
Mixed media on wood, 2026



Sound

90.9x72.7cm,
Oil on canvas, 2025



Sound

40.9x31.8cm,
Oil on canvas, 2026

NEO Art